<h1>나 혼자만 레벨업-16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j86ca3ee641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16화</p>  
<p>"예. 그렇기는 한데..."</p>  
<p>"아, 실례했습니다. 이쪽입니다. 헌터님, 제가 안내하겠습니다."</p>  
<p>"아... 예."</p>  
<p>여기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발뺌했다가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일단 안내를 따르기로 했다.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주위를 훑었다.</p>  
<p>'그러고 보니...'</p>  
<p>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.</p>  
<p>거리가 텅 비어 있었다.</p>  
<p>보이는 사람들이라곤 군인과 경찰들 뿐이었다.</p>  
<p>거기다 드문드문 보이는 마수의 사체들과 부서진 차량. 금이 간 건물들.</p>  
<p>진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.</p>  
<p>'이 근처 어딘가에서 게이트가 열렸나 보네.'</p>  
<p>요즘 같이 헌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는 시대에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, 외진 곳에 생긴 게이트를 발견하지 못해 가끔 막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.</p>  
<p>그때는 헌터들이 도착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인근의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출동한다.</p>  
<p>물론 군인들의 무기가 마수들에게 통할 리 없다.</p>  
<p>하지만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.</p>  
<p>속된 말로 총알받이가 되는 것이다.</p>  
<p>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그 일을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짊어지고 있었다.</p>  
<p>"감사합니다."</p>  
<p>앞서가던 군인이 진우에게 인사를 했다.</p>  
<p>"네?"</p>  
<p>"헌터님들이 수고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무사한 것 아니겠습니까?'</p>  
<p>"예..."</p>  
<p>감사하다라.</p>  
<p>오히려 군인에게 해 주고 싶었던 말이었다.</p>  
<p>군인은 헌터에게, 헌터는 군인에게.</p>  
<p>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답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있었다.</p>  
<p>치직-</p>  
<p>무전을 받던 군인의 얼굴이 밝아졌다.</p>  
<p>"주위 마수들은 거의 다 정리되고 이제 커다란 마수 하나만 남았답니다.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군인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.</p>  
<p>근방에서 강력한 생명체의 기운이 느껴졌다.</p>  
<p>그리고 그 생명체를 둘러싼 여러 헌터의 기운도 같이 느껴졌다.</p>  
<p>높아진 감각 스탯은 보이지 않는 정보를 느낌으로 전해 주었다.</p>  
<p>진우는 직감했다.</p>  
<p>'놈이 보스다.'</p>  
<p>곧 놈의 모습이 드러났다.</p>  
<p>멀지 않은 공터에서 헌터 십여 명이 암석으로 이뤄진 거인과 대치하고 있었다.</p>  
<p>거인의 크기는 전봇대 높이 정도.</p>  
<p>골렘형 마수였다.</p>  
<p>"헉..."</p>  
<p>군인이 신음 소리를 내며 한 걸음 물러섰다.</p>  
<p>마수를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는지 마수를 보는 순간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버렸다.</p>  
<p>누구라도 그럴 것이다.</p>  
<p>티비나 모니터로 보는 마수들과 현실에서 마주치는 마수들은 차원이 다르니까.</p>  
<p>그에 비해 진우는 침착하게 전황을 살폈다.</p>  
<p>"힐러 분들! 탱커 분한테 힐 좀 몰아주세요!"</p>  
<p>"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!"</p>  
<p>"이거 왜 이렇게 안 쓰러져?"</p>  
<p>"딜러 분들 뭐 해요? 쓰러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!"</p>  
<p>"저놈 방어력이 너무 높은 겁니다. 하필 마법계열 헌터가 몇 명 없어서!"</p>  
<p>급하게 불려 나온 헌터들이라 등급이 그리 높지는 않은 듯했다.</p>  
<p>방어도, 공격도 시원치 않았다.</p>  
<p>헌터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.</p>  
<p>쾅!</p>  
<p>골렘이 커다란 돌주먹을 아래로 내려치자, 탱커 역할을 하던 헌터의 무릎이 잠깐이지만 꺾였다.</p>  
<p>"커헉!"</p>  
<p>탱커의 입에서 울컥 피가 나왔다.</p>  
<p>"아, 안 돼!"</p>  
<p>"이러다 탱커 분 죽겠어요!"</p>  
<p>"어쩌란 말이에요! 마력이 바닥나가는데!"</p>  
<p>"상급 헌터의 지원은 아직입니까?"</p>  
<p>헌터들은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.</p>  
<p>모든 것을 지켜보던 진우의 눈빛이 예리하게 번득였다.</p>  
<p>'이 정도라면... 할 수 있다.'</p>  
<p>진우는 천천히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.</p>  
<p>골렘형 보스는 방어력만 높을 뿐이지 등급 자체는 보기보다 낮아 보였다.</p>  
<p>느껴지는 기운으로는 인던에 있던 보스 '푸른 독니 어쩌고'보다 한 수 아래였다.</p>  
<p>'그러니 놈의 방어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.'</p>  
<p>지금은 저 무식한 돌덩이를 꿰뚫을 강한 한방이 필요한 때였다.</p>  
<p>적당히 멀어진 진우는 던지기 자세를 취했다.</p>  
<p>부러진 검을 쥔 팔의 근육이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했다.</p>  
<p>굵은 힘줄이 손등에까지 솟아났다.</p>  
<p>모든 힘이 오른팔에 실렸다.</p>  
<p>잠시 뒤,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팔이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튀어 나갔다.</p>  
<p>"가라!"</p>  
<p>\*\*\*</p>  
<p>D급 헌터 이한수는 눈앞이 캄캄했다.</p>  
<p>이제 더 이상은 무리다.</p>  
<p>자랑하던 방패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.</p>  
<p>치유 헌터들도 마력이 고갈되어 가는지, 힐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.</p>  
<p>이대로 가면 결국 전부 죽는다.</p>  
<p>지금은 선택해야 할 때였다.</p>  
<p>헌터들이 도망가는 동안 자신이 마지막으로 시간을 벌고, 이후 상급 헌터들이 골렘을 처치하는 게 유일한 방안이었다.</p>  
<p>'그게 아니면 여기서 다 같이 죽던가.'</p>  
<p>이한수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.</p>  
<p>겨우 결심이 섰다.</p>  
<p>이한수가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.</p>  
<p>"여긴 제가 맡을 테니 전부!"</p>  
<p>그 순간 이한수는 보았다.</p>  
<p>멀리서 '번쩍'하며 이쪽으로 날아오는 무언가를.</p>  
<p>사실 봤다는 느낌만 있었을 뿐이고, 실제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.</p>  
<p>그 정도로 빨랐다.</p>  
<p>쾅-!</p>  
<p>그 무언가에 맞은 골렘의 머리가 박살 났다.</p>  
<p>"뭐, 뭐야?"</p>  
<p>이한수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머리를 잃은 골렘이 비틀대기 시작했다.</p>  
<p>그러자 헌터들은 환호성을 질렀다.</p>  
<p>이어 공격에 박차를 가했다.</p>  
<p>"됐다! 공격이 먹힌다!"</p>  
<p>"쓰러진다고!"</p>  
<p>"조금만! 조금만 더 하면 돼!"</p>  
<p>다들 공격에 집중하느라 아무도 멀리서 날아온 무언가를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.</p>  
<p>골렘 바로 앞에 있었던 이한수 외에는!</p>  
<p>그어어어-</p>  
<p>결국 골렘이 뒤로 넘어갔다.</p>  
<p>쿵!</p>  
<p>워낙 무거운 놈이 넘어지다 보니 흙먼지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.</p>  
<p>와아아-!</p>  
<p>헌터들은 소리를 지르며 열광했다.</p>  
<p>"해냈다!"</p>  
<p>"우리가 잡았다고!"</p>  
<p>오직 모든 것을 지켜본 이한수만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.</p>  
<p>'아니야. 우리 공격은 먹히지도 않았다.'</p>  
<p>이한수는 급히 쓰러진 골렘 주변을 살폈다.</p>  
<p>"대체 뭘로 이 돌덩이의 머리를 터트린 거지?"</p>  
<p>근처를 뒤적거리던 이한수가 부러진 검의 잔해를 발견했다.</p>  
<p>마력이 담겨 있긴 하지만 보잘것없는 철검이었다.</p>  
<p>'겨우 이딴 걸 던져서 10명이 넘는 헌터가 공격해도 끄떡없던 보스급 골렘을 쓰러뜨렸다고?'</p>  
<p>순간 말문이 막혀왔다.</p>  
<p>가만히 골렘의 사체와 검의 잔해를 번갈아 보던 이한수가, 기뻐하는 헌터들 사이를 지나쳐 검이 날아온 방향으로 달려갔다.</p>  
<p>"이봐요!"</p>  
<p>거기에 군인이 한 명 서 있었다.</p>  
<p>"예? 저 말씀이십니까?"</p>  
<p>"그래요, 당신!"</p>  
<p>산만 한 덩치의 헌터가 쿵쿵거리며 달려오자 군인은 경직된 얼굴로 침을 꿀꺽 삼켰다.</p>  
<p>그만큼 헌터가 일반인에게 주는 압박감은 대단했다.</p>  
<p>이한수는 검을 보여 주며 물었다.</p>  
<p>"이거 당신이 던진 겁니까?"</p>  
<p>"아, 이건 여기."</p>  
<p>군인이 뒤를 돌아보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"어, 어? 여기 분명 헌터 한 분이 계셨는데?"</p>  
<p>뒤에는 아무도 없었다.</p>  
<p>군인이 당황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동안, 이한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검의 잔해를 내려다보았다.</p>  
<p>'그 힘, 그 파괴력... 상급 헌터라도 왔었던 건가?'</p>  
<p>장본인이 사라졌으니 알 수 없는 일이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그 시각 진우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.</p>  
<p>골렘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바로 돌아섰다.</p>  
<p>골렘은 자신이 쓰러트렸다.</p>  
<p>본인도 잘 알고 있었다.</p>  
<p>원래 죽은 마수에게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쓰러뜨린 사람의 몫이었다.</p>  
<p>원한다면 골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.</p>  
<p>'하지만 문제는 그 골렘을 내가 쓰러뜨렸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거지.'</p>  
<p>E급 헌터의 공격에 거대한 골렘이 쓰러졌다는 말을 누가 믿어 줄까?</p>  
<p>변변한 증거도 하나 없이.</p>  
<p>부러진 철검 쪼가리나 같이 서 있던 군인이 크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았다.</p>  
<p>게다가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.</p>  
<p>결국은 골렘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능력치가 상승한 원인까지 밝혀야 했다.</p>  
<p>아무리 생각해도 득보다 실이 컸다.</p>  
<p>유일무이한 레벨 업 능력.</p>  
<p>겨우 골렘 사체 하나 때문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능력을 함부로 발설하는 우를 범할 수는 없었다.</p>  
<p>'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.'</p>  
<p>그렇다고 건진 게 아예 없지는 않았다.</p>  
<p>아니, 의외로 큰 소득이 있었다.</p>  
<p>골렘이 쓰러지는 순간 들렸던 메시지.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골렘을 잡은 덕분에 또 1레벨이 올랐다.</p>  
<p>'마수를 잡아도 레벨은 오른다.'</p>  
<p>좋은 사실을 알았다.</p>  
<p>지금은 그걸로 충분했다.</p>  
<p>시내 외과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아파트, 진우의 집은 그 아파트의 9층이었다.</p>  
<p>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.</p>  
<p>안은 깜깜했다.</p>  
<p>'진아 녀석 열심이네.'</p>  
<p>동생은 아직 독서실에 있는 모양이었다.</p>  
<p>식탁 위에는 식은 밥과 국이 있었다.</p>  
<p>어머니는 몇 년째 입원해 계시니 동생의 솜씨다.</p>  
<p>옆에 놓인 메모지에 귀여운 글씨가 적혀 있었다.</p>  
<p>-굶지 마, 다 먹었는지 확인할 거야.</p>  
<p>오늘 퇴원한다고 말했더니 바쁜 와중에도 저녁을 만들어 놓고 갔나 보다.</p>  
<p>진우는 피식 웃으며 식탁 앞에 앉았다.</p>  
<p>하지만 밥보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.</p>  
<p>"상태창."</p>  
<p>이름: 성진우</p>  
<p>레벨: 18</p>  
<p>직업: 없음</p>  
<p>칭호: 늑대 학살자</p>  
<p>HP: 2220</p>  
<p>MP: 350</p>  
<p>피로도: 2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48 체력: 27 민첩: 27 지능: 27 감각: 27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0)</p>  
<p>[스킬]</p>  
<p>패시브 스킬: (알 수 없음) Lv.MAX, 근성 Lv.1</p>  
<p>액티브 스킬: 질주 Lv.1</p>  
<p>하루가 길게 느껴졌다.</p>  
<p>그 긴 하루 덕분에 어느덧 18레벨이 되었다.</p>  
<p>근력은 이미 50에 가까웠고, 다른 능력치도 눈에 띄게 늘었다. 민첩과 감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.</p>  
<p>'거기다 옵션이 좋아서 꽤 쓸 만한 단검에, 아직 용도는 모르겠지만 오늘 얻은 골드까지 합하면...'</p>  
<p>쓰기 애매한 비약은 논외로 하더라도.</p>  
<p>인던 공략은 대성공이었다.</p>  
<p>9. 도마뱀들</p>  
<p>새벽에 집을 나서는 사람은 항상 움직임이 조심스럽기 마련이었다.</p>  
<p>가족들이 잠에서 깰 수 있으니까.</p>  
<p>그래서 아침 일찍 등굣길에 나선 진아는 곤히 자고 있을 오빠가 깨지 않도록 조용하게 문을 잠그고 돌아섰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"학교 가냐?"</p>  
<p>"어?"</p>  
<p>가까이서 들린 목소리에 진아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진우가 진아 쪽으로 천천히 달려오고 있었다.</p>  
<p>추리닝과 운동화.</p>  
<p>후드를 깊게 눌러쓴 모습이 어디서 조깅이라도 하고 온 모양이었다.</p>  
<p>진아가 안 그래도 큰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"뭐야? 오빠 일어나 있었어?"</p>  
<p>"일어난 지 한참 됐지. 차 조심해서 갔다 와라."</p>  
<p>"으... 응."</p>  
<p>집으로 돌아가는 오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진아가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'별일도 다 있네. 오빠가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.'</p>  
<p>진우가 절대 게으른 편이라곤 할 수 없지만, 진아가 또래에 비해 지나치게 부지런한 관계로 보통 하루를 먼저 시작하는 쪽은 항상 진아였었다.</p>  
<p>'그러고 보니...'</p>  
<p>오빠의 등이 예전보다 좀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.</p>  
<p>에이, 설마.</p>  
<p>사람 몸이 고무줄도 아니고 며칠 안 본 사이에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어디 말이나 되나.</p>  
<p>'착각이겠지.'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